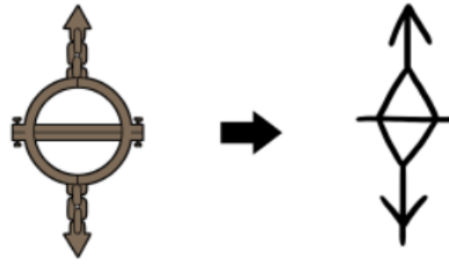


6(2)
-
71

상형문자 ①



幸

다행 행

幸자는 '다행'이나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幸자는 干(방패 간)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방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幸자를 보면 양손을 묶는 수갑과 벽에 고정하는 쇠사슬이 그려져 있었다. 수갑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런데 왜 수갑을 그린 글자가 '다행'이나 '행복'을 뜻하게 된 것일까? 한자는 지배계층이 만든 문자다. 그들로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잡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뜻이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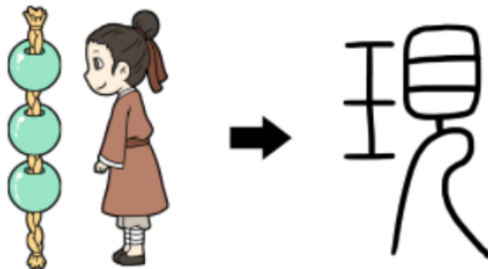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72

회의문자 ①



現

나타날
현

現자는 '나타나다'나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現자는 玉(구슬 옥)자와 見(볼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見자는 사람의 눈을 크게 부각시켜 그린 글자로 '보다'라는 뜻이 있다. 現자는 이렇게 큰 눈을 그린 見자에 玉자를 결합해 옥의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옥의 원석을 가공해 보석으로 만들면 광채가 나는데 그러한 광채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現자이다. 그래서 現자는 본래 '옥의 광채'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물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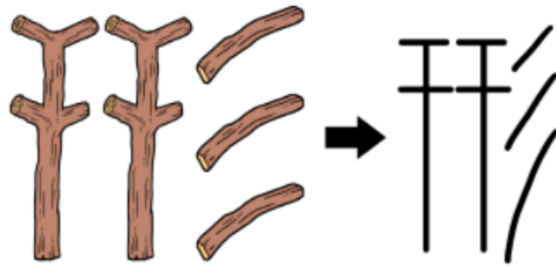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73

회의문자 ①



形

모양/
형상
형

形자는 '모양'이나 '형상'을 뜻하는 글자이다. 形자는 开(평평할 견)자와 彡(터럭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开자는 두 개의 干(방패 간)자를 겹쳐 그린 것으로 '평평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开자에 彡자를 더한 形자는 '둘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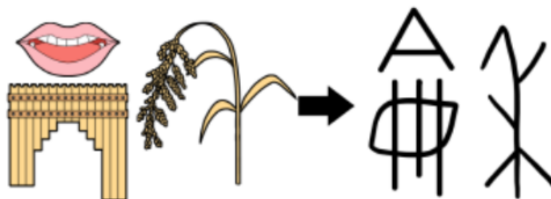
소전

形

해서

6(2)
-
74

형성문자 ①



和

화할 화

和자는 '화목하다'나 '온화하다'하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和자는 禾(벼 화)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禾자가 '벼'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口자가 더해진 和자는 먹고살 만 하니 '화목하다'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龠(피리 약)자가 들어간 龠(화할 화)자가 쓰였었다. 龠자는 피리를 그린 龠자를 응용한 글자로 피리 소리가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조화롭다'를 뜻했었다. 여기서 禾자는 발음역할만을 했었다. 하지만 금문에서부터는 소리의 조화를 口자가 대신하게 되면서 지금의 和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龠

갑골문

和

금문

和

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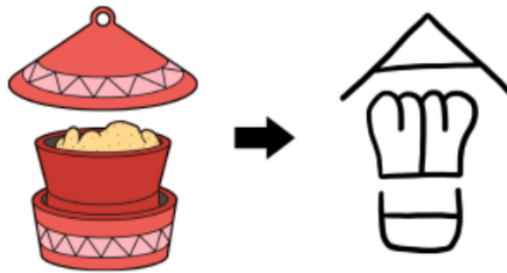
和

해서

會

모일(모
을)
회

상형문자 ⓘ



會자는 '모이다'나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會자의 갑골문을 보면 뚜껑과 받침 사이에 음식이 會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음식을 보관하는 찬합을 그린 것이다. 會자는 이렇게 찬합이 결합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모이다'나 '모으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사물이 결합하는 모습의 會자는 후에 사람 간의 만남이나 만남의 시간과 관련된 의미를 파생시키게 되어 지금은 '만나다'나 '시기'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